벽에쓰인 글씨_오경연 목사

74과 벽에쓰인 글씨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과가 되어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언제 죽을준 모르죠 그런데 기록된 본문을 보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어리석은 잔치를 베풀면서 그의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술자리로 분위기가 들 떠있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겁니다. 메네메네데겔 우 바르신 글을 쓰고 그것을 나이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 쓰여졌던 대로 벨사살 왕은 죽게 되는 거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되니까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 관해서 쭉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에 대해서 배우는 본문이니까 좀 우리가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벨사살 왕만을 통해서도 저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배우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유인물에는 느부갓네살왕과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벨 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때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해인 B.C. 539년으로써 이미 메데바사 연합군을 이끌고 있던 바사왕 고레스 2세가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정복하고 수도 바벨론 성을 약 2년간 포위해서 이제 마지막 정복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입니다. 이런 때에 벨사살 왕은 1천명의 엄청난 귀족들을 초청을 하고 왕후와 수많은 빈궁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은 천해의 요세였고 또 그곳에 바벨론 시민 전체가 20년 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바벨론 이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며 지내들이 저렇게 계속 포위하고 있다가 지치면 돌아가겠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성전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거 가지구서 술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금은동철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큰 교만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에 어리석은 벨사살왕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말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되어있는데요 벨사살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벨사살은 왕으로써 이전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제와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 알고도 라고 말했죠
역사의 산 증인인 다니엘도 살아있잖아요 다니엘도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때로부터 이게 바벨론왕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가 B.C. 604년에서 562년인데요 현재는 벨사살왕이 망하는 때인 B.C. 539년하고 비교해보면
562년 죽을 때하고 539년하면 몇 년 차이 안나죠 불과 23년 정도 받게 차이 안나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수백년전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몇 십년전 이야기 인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벨사살왕이 모를 이유가 없는거에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그런데 가까운 시간에 위대한 선왕으로부터 좋은 교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행동으로 잘 들어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그에게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까짓꺼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로 술잔치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무시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서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을 겁니다.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이런 죄들은 사형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알고도 청종치 않으면 그 결과의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가 해를 받느니라. 벨사살은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2번에 2번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어리석은 잔치 되어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정말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자자손손 먹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나도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오랬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오늘밤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내새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속에서 그의 교만은 그의 종말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잔치가 그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호와로이 연락하는 잔치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요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살았던 거에요 그 부자는 늘 나사로를 봤던 거에요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내세냐? 모양세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그러겠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잘먹고 잘사는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바로 둘이 딱 죽으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못하는 겁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면 뭐하겠습니까? 늦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자에 어리석은 잔치
벨사살은 어리석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모르고 내세도 준비안하고 출발점은 하나님을 모르는데서부터 시작되는거에요 어리석은자는 그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에요
이사야서 5장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온갖 잔치는 다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거에요 하나님과 잔치는 많이 벌였는데 그 안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겁니다.

4번 교만은 그의 어리석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리석다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교만인 거에요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최고니까 교만해 지는 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 삶가운데도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 견주어서 나는 견줄 대상도 안되죠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합니까?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 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 안두고 내 옆에 있는 조금 나보다 못하는 거 같은 형제자매에게 두니까 내가 감히 그들 보다는 낫다라는 교만이 올라오는거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이러면 넘어지기가 쉬운거에요 내 평가의 기준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늘 점검을 해야되는 거에요 알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암송시험 보자고 하면 저희가 다 맞추겠어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일을 지혜롭게 행하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겠어요 정말 연약한 겁니다. 교만은 어리석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입니다. 벨사살의 어리석음은 그의 교만한 행동으로 확실하게 들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벨사살을 심판하셨습니다. 벨사살은 바로 당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비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사람들이 피차 손을 잡아도여 피할수 없는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2년동안 애웠었잖아요 바벨론을 그러면 2년동안 기회를 준거에요 안준거에요?
기회를 2년동안 준거에요 그럼에도 교만했잖아요 안꺾이는 겁니다 노아시대에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방주에 탄 사람은 그들 중에 없었잖아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던 거에요 죄를 고집했던 거에요 망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처음에 1차로 왔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2차 3차에 불행한 결과가 없었을꺼 아니에요? 그런데 2번 그래도 정신 못차렸죠 그래서 마지막 3번에서 완전히 박살 내버리잖아요 남쪽 유다가 그러고 보면 북이스라엘은 한방에 무너졌는데 남쪽 유다는 3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기회를 더 준거 잖아요? 그런데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꺼꿀어지고 망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기회는 계속 주는거에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나중에 잃어지는거에요 그 개인에게는 어이고 갑자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보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는데
어리석은 부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왔다갔다 했었던 큰집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나사로는 늘 그집에 있었던거에요 나사로를 한번도 본 것이 아닌 거에요 나사로를 보면서 늘 경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벨사살도 2년이나 포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았어요
희안하죠 교만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최후에는 가장 큰 잔치를 벌인거에요 정말 어리석은 잔치죠 정말 마음이 교만하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데 재를 뒤집어 써야되는데 2년 동안 쭉 있다가 제일 막판에는 가장큰 잔치를 벌인거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있잖아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갑자기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나오는데요 헤롯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 목소리처럼 하는거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돌린 겁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놀랬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양심에 송사가 올 때 돌이켜야 됩니다.

5번 벨사살왕이 의지했던 것 중에 어떤 것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금은동철목석 모든 것도 벨사살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찌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잠언 24장 12절 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 하시면서 그 마음이 나타나는 행동을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 행동도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은밀한 일도 심판하시고 각사람의 행위도 심판하신다고 말하는거에요 하나님 앞은 다 저울질 하는 거에요
부족했던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 보십니다. 벨사살왕이 만약 바로 그 순간에라도 회개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날밤에 바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만약에 글자 나타나고 다니엘이 이야기 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정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잖아요? 그 아합왕이 회개한거 아셔요? 아합왕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했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아내 부인이였던 이세벨이 잔인한 계략을 꾸며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심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네 결과가 좋지 않을거다. 이세벨이 잔인하게 죽을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런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가장 악한 왕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재앙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가장 나쁜 놈도 그리고 앗수르가 굉장히 죄가 많은 곳이잖아요?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런데 요나한테 가서 회개 하게 할 것을 외치게 하잖아요? 회개 했어요? 안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망할 도시가 망하는 것이요 나중에 나훔서 까지 나오는거 보니까 100년후로 심판이 연기가 된거에요 또 다윗도 나단이 책망을 했었을 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거에요 바로 용서가 됐어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범죄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사하셨다. 당신은 죽지 않을 거다 말하는거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책망 당할 때에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십니다.
벨사살 왕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고서 정말 잘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 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너 참 지혜 대단하다 정도 말하고 금 사슬 목에 주고 옷도 입히고 조서도 내려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거든요 그거 하면 뭐해 그거 할 시간에 회개 해야지 그렇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에요 결국 그날 밤에 죽었어요

3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서 배우는 교훈 되어있는데 교만했던 느부갓넷살 왕은 비참한 7년의 삶을 보냈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년 동안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지냈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비참하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거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존경 해야되는데 그걸 못 배운거에요 참 불행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의 비참한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배웠고 벨사살은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을 못 배운거에요 우리보고 둘 중에 한사람의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벨사살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꼭 개인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반듯이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배우는 것도 없을 겁니다.
다 편안하면은 많이 배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요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찌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뭐 돈 받고 해석하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저거 읽어서 내가 불행하게 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할말은 해야되겠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노년에 그의 인생이 이 한마디에 꼬일 수도 있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 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606년에 끌려와가지고 539년이면 벌써 67년 지났거든요 20살에 끌려왔다면 87세고 10대에 끌려왔다고 해도 상당한 나이인데 그 노년에
어휴 하나님 그럴때는 저런거 안보여 주시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 노년에 할 말을 딱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당신 이제 곧 죽는다고 이 한 마디 하는게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해석을 알게 하리라.

엘리야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했죠? 예수님이 부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부인할 거라고 이런 위기의 때는요 그의 신앙을 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에요 담대하게 말할 것을 말해야 되는거에요

예레미야 1장 7-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찌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뭐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좋은 소리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유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까지 했거든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책 기록해서 주니까 찢어버렸잖아요, 불태워 버렸잖아요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 시대에 마지막 때에 종말 이 세상을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이제 이 세상은 부족함이 보여서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상은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람들 한테 해야되요? 안해야 되요? 그거 말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게 되더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말해야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 받게 없었습니다. 우리시대에 마지막을 알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구원받은 사람이 알잔안요 그러면은 저희가 말해야 되는 거에요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거에요 비록 그런 말에서 환영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계수양회 여름 성경학교 이런 때는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외치는 때잖아요 한 사람처럼 땀을 흘리는 때 잖아요 이럴 때에 나는 그냥 안가야지 바쁜데 한나절 갈걸 뭐하러가, 가지도 않은데 접수를 해? 그런건 참 이해가 안가는 행동인거 같아요
그것은 뭐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두요 정말 구원받고 우리가 깨어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구요 내가 참여

를 못하면요 헌금하는 마음으로 접수라도 해야되는거에요 그건 아주 당연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마음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거에요 집에 있으면 기도 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양회 때에 정말 담대하게 내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다니엘에게 이런 예물 상급 그건 뭐 다른 사람주시라고 나는 그런거 상관없다고 그럴지라도 나는 할말은 해야겠다고 내가 하는 이것이 상급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하계수양회 여름 성경학교 참여해서 얻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가서 할 만 하는 겁니다 할 행동을 하는거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일에 충성했다. 인생중에 1년중에 3박 4일 얼마나 짧아요? 단 하루라도 갈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365일 중에 하루는 정말 짧잖아요 네가 작은일에 충성했다. 그런말 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에 신앙에 관해서도 전체적인 벨사살에 관련된 이야기 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당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보이냐?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벨사살왕이 결국은 망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글을 기록해줘서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서 선포하도록 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우리도 증거해야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구요
증거했는데 안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결국 벨사살은 안받아들이고 죽었거든요 다니엘이 잘못되진 않았잖아요 우리도 일단 증거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편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일단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교만이 결국 그를 폐망케 하였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

았지만 벨사살은 그 책망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날 밤에 당장 죽는 비참한 심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자주 책망하실 때에 소홀히 듣는 사람들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말을 하고 전해준 것처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계수양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사람의 기도와 참여를 통해서 또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